

한국보건환경의 기동

김민영(金旻永) 원장 - 2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2. 신념과 열정으로 살아온 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김민영 원장은 1946년 서울 충무로의 한 평범한 가정의 2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6.25때 경남 마산으로 이사하여 초등학교와 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돌아와 대학에 들어갔다.

실험, 분석 등 화학과목을 좋아해, 집안형편상 전 학년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는 건국대 농화학과를 선택하였고 그 덕에 전 학년을 장학생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 후, “경우가 곧 법률이며, 성실과 신용이 제일 중요한 자본이다.”라는 어린 시절 부모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고 대학졸업과 함께 공채에 합격하였고, 바로 연구직으로 전직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접지 않았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단국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학위 수여 시에는 100여명의 박사학위 수여자 중 대표학위수여자로 선정되어 첫 번으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을 때 만학의 기쁨은 더욱 컸다.

36년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세균, 수질, 대기, 소음, 기기분석 등 환경 및 보건분야에 대한 실무

적 분석능력을 습득하였고, 23년 2월간의 과·부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직무능력과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였다.

원장 재직전 후 서울시내 각종 환경 및 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검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바쁜 일과를 쫓개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 대책 및 관리방안을 실무와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지금까지 환경분야 SCI(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등 국내외 과학기술지에 총 370여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하였다.

더욱이 국제적 SCI권위학술지인 ‘Atmospheric Environment와 Chemosphere’ 등에 최근 7~8년간 20편의 우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고,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공로를 인정받아 2002. 4.26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 받았고, 같은 날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수여하는 “환경기술상”을 수상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03년 7월에 한국환경보호협의회 등 57개 민간환경단체가 2년마다 수여하는 한국공직자환경공로 ‘시민의 상’을 이만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차관)과 함께 공동수상했고, 환경분야 최고 권위학술지 중의 하나인, SCI인 ‘Journal of Atmos.Chemistry’에

2006년도 한국석학 best 10에 선정된 세종대 김기현교수 등과 함께 한 북반구지역의 수은에 관한 논문이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 2005년 1호집에 첫 번째로 실림과 함께, 가장 많이 보는 논문(Most Viewed Articles)에 1위로 순위가 결정되어 저 자신의 자부심은 물론 연구원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전문위원회 대기오염분과위원, 국가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평가심사위원,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 기술연구위원회위원 등 12개 분야의 환경전문위원과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한국분석과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등 7개학회의 임원 또는 정회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2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대기환경학회 11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환경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서울시공무원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관학협력증진과 서울시의 환경분야전반에 대하여 대외에 홍보하여 왔다.

그밖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독일의 Dr. Kreisel, 미국 사막연구소의 알란가틀러 박사, 캐나다 온타리오주환경에너지부 책임연구원 케리 박사, 일본국립기후대학 타카미자와 교수, 오오사카시립대학의 곤도교수 등과 그리고 국내 환경분야 원로학자 모임인 Seoul Eco Club(일사회)의 100여회원중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각계 각층의 많은 전문가와 친분을 유지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연구원의 연구를 설명하고 있는 김민영 원장(사진좌측, 2006년)